

# 지금 여기에서 ‘다름’을 외치다

## -2020년대 전후 한국 SF의 헤테로토피아

최애순(계명대학교)

### 1. 서론

2010년대 이후 어슐러 르킨의 번역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단편과 에세이들도 함께 각광받고 있다. 어슐러 르킨의 소설들이 다시 주목받게 된 데에는 국내에서의 SF의 붐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어슐러 르킨이 제기했던 아나키즘 유토피아나 페미니즘 유토피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SF의 붐과 함께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과 경계를 사유하면서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에 관한 논의도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인류적 감염사태와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직면한 2020년대 미래는 디스토피아의 색채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가 디스토피아를 향하더라도 인간의 유토피아를 향한 염원과 의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거릿 애트우드는 ‘유스토피아’라는 혼재된 용어를 고안하기도 한다. 인간의 유토피아를 향한 염원과 의지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실에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이상사회를 건설하고픈 유토피아 섬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이상사회가 고립된 섬 유토피아에서 탈피하고 벽과 경계를 부수고 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어슐러 르킨을 시작으로 일기 시작한다. 어슐러 르킨의 *The Dispossessed*는 고립되고 격리된 유토피아라는 허상의 이름으로 둘러싸인 벽을 깨부수고자 하는 사유를 담고 있다.

『빼앗긴 자들』이라고 번역된 어슐러 르킨의 이 책은 ‘우라스’와 ‘아나레스’라는 두 행성으로 분리된 공간을 다룬다. 우라스의 벽은 한쪽에서 보면 아나레스 우주항이라고 하는 60에이커짜리 황야 지대를 에워싸고 있었다. 여기에는 캔트리 크레인 몇 대와 로켓 착륙대 하나, 창고 세 채와 트럭 차고, 그리고 숙소 한 채가 있었고, 이 숙소는 때 묻고 음침한 데다 정원도 아이들도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았거나, 살았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사실상 ‘격리’의 공간이었다. ‘쉐백’은 아나레스에서 우라스로 벽을 허물겠다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은 두 번 다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우라스로 온다. 아나레스는 우라스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이 그들만의 사회를 건설한 곳이다. ‘우라스’는 풍요로운 땅이고 ‘아나레스’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다. 쉐백은 우라스로 가지만 그의 과학기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쫓기다가 우라스로부터 겨우 탈출하여 아나레스로 온다. *The Dispossessed*(추방된(쫓겨난) 자들)는 ‘추방된 자’ 혹은 ‘쫓겨난 자’로 번역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라스에서 떨어져 나와 차별과 배제가 없고 평등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지만, 그곳은 우라스로부터 밀려난 자들(추방된 자들)의 공간이었다. 아나레스에 살면서 우라스를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라스는 풍요로운 낙원으로 사실 아나레스인들도 살고 싶어하는 유토피아이다. 우라스가 풍요로운 땅의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나레스로 부적응자들을 추방했기 때문이다.

어슐러 르킨의 *The Dispossessed*(추방된(쫓겨난) 자들)에서 보여주는 유토피아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살기 좋은 이상사회가 아니다. 지금 여기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길 바라는 염원이 지금 여기의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추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공

간이다. 어슬러 르권이 보여 준 추방당한 자들의 유토피아 공간은, 미셸 푸코의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와 맞닿아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지도상에 표시할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도 위에 위치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를 가지는 유토피아들이다.<sup>1)</sup> 미셸 푸코는 서로 구별되는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로, 일종의 반공간(*contre-espaces*)이라 한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정원의 깊숙한 곳(비밀의 정원), 다락방(다락방의 외계인), 다락방 한가운데 인디언 텐트, 목요일 오후의 부모의 커다란 침대이다. 이러한 반공간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만의 반공간, 모든 장소 바깥의 실제 장소들을 스스로 조직했다. 정원, 묘지, 감호소, 사창가, 감옥, 휴양촌 등 우리 주위의 곳곳에 있다. 미셸 푸코가 모든 장소 바깥의 '다른 공간', 실제 장소이나 모든 장소들에 맞서는 반공간으로 꼽은 곳들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되는 숨겨져야 하는 곳들이다.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살기 좋은 이상사회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현실에 있는 지금 여기의 '다른 공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인 장소로 꼽은 것들은 사회에 드러나서는 안되는 금기시된 공간이거나,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을 수용하는 곳이거나 일탈하고 싶은 욕망의 은밀하고 내밀하여 겉으로 드러나면 더럽고 추악한 곳이다. 유토피아를 현실에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억압해 놓은 곳들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믿어 왔던 공간들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추방하여 격리해 놓은, 우리 옆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밀어냈던 곳들이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유토피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싶은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였던 것이다.

유토피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섬의 '원주민'이었거나, 사회로부터 '추방된 자들'이다. 유토피아는 식민지 개척과 대항해 시절에 섬을 정복하려는 인간들과 냉전 시대의 우주개척 시대에 지구 이외의 행성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정복 욕망의 역사에 다름아니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섬도 우토포스가 정복한 땅이며, 홍길동이 건설한 울도국도 울도국 왕을 몰아내고 세운 곳이다. 척박한 무인도나 첫 개척을 위해 보낸 자들은 유토피아의 환상을 품은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다. 미셸 푸코는 우리 문화 내부에 있는 온갖 '다른' 실제 배치들은 재현되는 동시에 이의제기 당하고 전도된다고 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 논자들이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현실에 없는 곳과 현실에 있는 곳으로 구분하거나, 유토피아를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곳으로, 헤테로토피아를 모든 장소에 반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그 두 공간은 서로 정교하게 얽혀 있으며 유토피아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상에 남겨둔 곳이다. 그래서 두 공간이 절대적으로 맞서는 '다른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이다. 다만 지도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냐의 차이이다. 유토피아가 밖의 사람들의 욕망의 발현된 환상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지나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격리된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가 지금 여기의 다른 곳, 장소 바깥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매음굴을, 사창가, 묘지를, 감옥을, 수용소를, 요양원을, 우리 옆에 도심 한가운데 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어도 부정하고 싶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인식하고 싶지 않은 장소 바깥의 모든 이의제기 장소이다. 우리가 부정하고 변두리로 밀어냈던 공간이 지구 '밖', 지구 '끝', 외딴 섬에서 유토피아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지도의 변두리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유토피아의 배경이라고 한 바 있는데, 여기에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절대적으로 다르지만, 일종의 거울과 같은 쌍생아처럼 내가 없지만 내가

1)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2023년 제2판 1쇄), 11면.

있는 비실제적 공간인 거울 안이 유토피아라면, 거울 밖의 내가 거울 안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차지하는 자리는 현실에 있는 헤테로토피아가 된다.<sup>2)</sup> 현실에 없는 유토피아와 지금 여기의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가 겹쳐지는 순간은, '자각'을 통해서이다. 유토피아를 향한 욕망은 지금 여기의 더 나은 곳을 바라는 사람들이 구현해 놓은 것이다.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일탈적인 것들이 행해지는 곳은, 장소 바깥의 '다른' 곳이어야만 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질서와 안정과 규범과 정상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제2권의 유토피아의 영토, 땅, 도시, 사람, 관습, 제도, 법률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라파엘이 유토피아 섬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 영국 사회문제에 관한 논의를 펼쳤던 제1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절도범'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영국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영국은 절도범들이 극심하게 들끓었다. 영국 정부는 이 절도범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파엘은 절도범과 같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 절도범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을 이야기한다. 절도범을 처벌하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한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징역형의 장점을 들고 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쇠사슬을 차지 않아도 되고, 단지 낮시간 동안 부과된 노동을 하면 이외의 생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이곳은 범죄자들에게는 지상낙원 천국처럼 묘사된다. 여기에 추기경이 부랑자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의견을 모은다. 탁발 수도승이 자신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부랑자를 모두 잡아들여 강제로 일을 시키면 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자 탁발 수도승이 분개한다. 영국 종교에서 탁발 수도승은 부랑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사회문제로 거론된 자들은 절도범, 부랑자, 병자, 노인, 거지 등이었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나라의 모든 거지를 베네딕트 수도회에 강제 입회시켜서 남자들은 평신도 형제들이라 불리는 수도사가 되게 하고, 여자들은 수녀가 되게 하여, 전국 각지의 수도원에서 생활하게 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제1권에서 사회문제로 거론되었던 절도범, 부랑자, 병자, 노인, 거지의 해결책은 모두 잡아들여 한곳에 몰아넣고 징역을 부과하거나 수도원에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문제로 거론된 절도범, 부랑자, 병자, 노인, 거지, 떠돌이 탁발 수도승, 용병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싶은 자들이었다. 도시가 발달하고 깨끗하게 정비될수록 뒷골목의 부랑자, 거지, 절도범, 떠돌이는 더럽고 냄새나고 음습하여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영역이다. 유토피아의 배경에는 바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의 사회로부터의 격리시키고자 하는 유토피아 밖에서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유토피아는 건설자들의 정치적 의지라기보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지향하는 의지를 반영한,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자들을 추방하고 격리한 공간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섬에 절도범, 부랑자, 병자, 노인, 거지, 용병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켜서 내몰린 자들이 거주한다면, 홍길동은 도성 안에 들끓는 도적떼들을 데리고 저도(어디인지 정확히 지도상에 표시할 수 없음) 섬에 들어간다. 문윤성의 『완전사회』에서는 남성들을 화성으로 축출하고 5차 세계전쟁까지 벌인 뒤 살아남은 여성들이 비커즈섬에 '여인들의 공화국'을 세운다. 그 넓은 지구 땅에서 뉴질랜드 근처의 비커즈 섬에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인들의 공화국'이라는 유토피아는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인류 모두가 지구 밖의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날 때, 데려가지 않고 지구에 남겨둔 자들의 '축출된' 공간이 아닐까. 남성들이 추방당했다는 '화성'이 오히려 유토피아로 찾던 곳이 아니었을까. 우주개척 시대에 지구 이외의 행성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던 1960년대

2)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2023 제2판 1쇄), 52면.

와 1970년대 냉전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비커즈 섬에 고립되어 격리된 여인들은 그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에서 추방당하고 버려진 자들이 아닐까 하고 반문해 본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여성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한 SF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요소가 '여성'이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도적, 정신병자, 감염병자, 나병환자, 여성과 같은 대상들을 어디에도 없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냈던 유토피아는 2020년대 또 어떤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서 유토피아라는 환상으로 정치적 실현을 꾀하려는 것일까. 2020년대 SF에서는 장애, 노인, 어린이, 여성, 동물, 사이보그와 같은 취약자들이 관심과 화제로 떠오른다. 이들이 갑자기 화제로 떠오른 연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더 이상 사회의 취약자들이 '유토피아'라는 벽이 둘러친 아름다운 수용소 안에서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김초엽은 김원영과 같이 쓴 『사이보그가 되다』(사계절, 2021)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반복된 환상을 심어주며, 지금 누릴 행복을 언제까지나 유예시키는 것에 대해 반문한다. 지금 여기에서 존재할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며 스스로 유토피아의 주체가 되고 싶은 이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건설한 유토피아에 갇히길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유토피아라는 환상에 갇히길 거부하고 밖으로 나와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현실에 없었던 추방당한 자들의 공간이 현실에 있는 '헤테로토피아'로 바뀌고, 장애인이 사는 도심의 외곽지역과 변두리의 더럽고 음습한 곳에서 사는 장애, 노인, 동물, 식물, 사이보그의 몸이 유토피아의 주체가 된다. 거울 속의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던 '나'는 거울 안을 바라보는 지금 여기의 이 자리에서 차별과 배제와 대립과 갈등으로 뒤범벅된 헤테로토피아에 있다. 그러나 수용소는 지도에 위치 지을 수 있지만, 장소 바깥이라 저 건물이 수용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있지만 없는 '다른 공간'으로 자리한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란 용어를 결합해서 '유스토피아(ustopia)'라는 용어를 만들었다.<sup>3)</sup> 마거릿 애트우드는 모든 지도에는 알려진 영역과 알려지지 않은 영역 사이의 경계, 변두리가 존재한다고 한다.<sup>4)</sup> 더불어 유토피아보다 '유스토피아' 논의가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sup>5)</sup> 유토피아를 다룬 초기작들은 변두리,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고 알려진 세계 너머에 있는 영역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 제작이 각각의 유토피아에서 진짜 같은 지도를 제시하고, 현실의 지도 제작이 바다에서 기존에 발견된 바 없는 영역을 채워 버리자 섬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116면) 지하, 언덕 아래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의 난쟁이들이 사는 세계로 이동했다가 지질학자들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채워 버리자 유스토피아는 미개척 내륙 지역으로 이동했다. 내륙 지역이 더 이상 개척이 불가능할 만큼 빈틈없이 채워지자 유스토피아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했다.(117면) 유스토피아는 이제 태양계와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공간, 평행 우주,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을 만큼 오래된 과거, 혹은 미지의 영역인 미래가 된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유스토피아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거의 항상 두 차례의 여정을 수반한다고 한다. 처음 여정에서는 이야기 전달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3) 마거릿 애트우드, 『나는 왜 SF를 쓰는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양미래 역, 민음사, 2021, 112면.

4) 마거릿 애트우드, 『나는 왜 SF를 쓰는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양미래 역, 민음사, 2021, 113면.

5)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스토피아와 사이보그-‘되기’」, 『도시인문학연구』 제15권 1호, 2023.4, 161~193면; 진선영, 「인류세, 기후소설과 유스토피아(USTOPIA)- 김기창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21권 2호, 2022.6, 195~221면; 전소영,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마거릿 애트우드와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지구 종말이후의 이야기들」, 『동서비교문학저널』 63, 2023.3, 291~309면.

다음 여정에서는 이야기 전달자가 원래 장소로 복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마거릿 애트우드는 대부분의 유스토피아는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문학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다고 한다.<sup>6)</sup> 우리는 각자 나만의 유스토피아, 어디에든 있으나 어디에도 없으니 장소는 아니지만, 지도에 그릴 수 있는 위치의 유스토피아를 창조하고 있으며 갖고 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대학에 다니며 별레가 우글거리는 ‘다락방’에서 빵껍질을 갠다 먹으며 대작을 쓰겠다고 결심했던 ‘유스토피아’ 공간이 있었다. 또한 그에게 학교 과제를 회피하며 시간을 보냈던 와이드너 ‘도서관의 서고’는, 정체불명의 책들이 가득했고, 전혀 상관없는 책들을 읽으며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부모님 댁의 책으로 가득찼던 ‘지하실’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해 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다락방, 지하실, 도서관 서고와 같은 유스토피아 공간은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와 겹쳐진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유스토피아는 크게 미지의 개척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공간과 마음의 상태로서의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이 두 공간은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서 사회로부터 이탈하거나 격리된 수용소, 기숙사, 감옥, 양로원 같은 공간과 개인의 내면적 욕망의 다락방, 지하실, 부모가 나간 안방 위의 침대 등의 공간과 겹쳐진다.

하수도와 위생 시설의 개선, 석탄산을 활용한 소독, 마취, 예방 접종 등이 가능해지고, 운송업과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더럽고 악취 나는 거리의 부랑자나 거지, 감염병자 등은 도시 계획과 함께 외곽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에드워드 벨러미와 윌리엄 모리스의 『뒤돌아보며』와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과 같은 유토피아 소설은 불평등, 부정의, 죄악, 불결함, 질병, 난잡함을 인류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식민지 개척자들이 뉴잉글랜드를 현실에 구현되는 ‘신의 도시’ 유토피아로 간주한 것과 달리 여기에 처음으로 지어진 시설은 ‘교도소’와 ‘교수대’였다.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가 계획되고 정비되어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로 부풀었을 때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외곽으로 밀어내고 보이지 않게 숨겼을 뿐이다.

미셸 푸코는 바로 이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명명한다.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으나 좋은 곳,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현실에 있는 다른 곳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부딪치며 모순되는 공간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지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미개척지였던 역사를 상기해 보면, 지도상에 있었던 곳이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던 곳을 먼저 개척하고자 하는 욕망이 유토피아의 구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토머스 모어가 제시했던 유토피아 섬은 우토포스가 원주민이 살고 있던 섬을 정복한 땅이었다. 원주민이 야만인이라 살기 좋은 곳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문명을 개화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정복의 역사를 유토피아라는 이상사회 건설 아래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유토피아에 담긴 이상사회의 건설이라는 인간의 정치적 의지는 유토피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다. 바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제1권에서 대신들이 논의를 펼쳤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반)공간이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방해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나 사람들을 모아서 현실 너머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하고 싶은 욕망이 구현된 공간인 것이다.

『홍길동전』이나 『허생전』, 문윤성의 『완전사회』나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유토피아가 ‘섬’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 2020년대 SF에서 구현되는 유토피아 공간은 더이상 섬이 아니다. 개척해야 할 무인도나 지도상에 발견되지 않은 바다 건너 땅이 더이상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지도 밖 미지의 세계는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다른 행성이거나 지구의 끝 ‘변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공간인 헤테로토피아를 사회로부터 파생된 위기와 이탈의 헤테로토피아와 개인의 성장과 마음의 상태에서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금기시된 헤테로토피아로 구분하여 유토피아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공간은 유토피아 마을과 떠나온 곳이 일치하는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헤테

6) 마거릿 애트우드, 『나는 왜 SF를 쓰는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양미래 역, 민음사, 2021, 124면.

로토피아가 유토피아라는 환상으로 현실에서 추방한 자들을 보냈던 곳과 겹쳐지게 되는 것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초엽과 정세랑의 SF에서 마치 거울의 양면과 같이 제시되는 두 공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공생가설」, 『지구 끝의 온실』, 정세랑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모조 지구 혁명기」, 「11분의 1」 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에서 은혜와 투데이가 만나는 ‘마방’, 연재가 휴머노이드 콜리를 고쳐주고 지수, 연재,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가 만나는 지수의 ‘이층방’은 두 번째 공간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들이 힘을 합쳐서 투데이를 경주에 세우는 ‘경마장’은 또 다른 층위의 현실에 배치한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이다. 천선란의 『나인』의 ‘숲’은 헤테로토피아이면서 나인의 몸은 유토피아적인 몸이기 때문에 장소성 논의에서는 접어두고 다음 기회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다락방’, ‘뒷산의 굴’, ‘비밀 아지트’, ‘폐창고’ 등의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아동청소년 SF 이규희의 『다락방의 외계인』의 이층 다락방, 고호관의 「하늘은 무섭지 않아」의 마을 뒷산, 남유하의 「푸른 머리카락」의 등대가 있는 방과제, 그리고 미셸 푸코가 제시했던 유토피아를 찾아 떠도는 있으나 없는 장소 ‘배’에서 ‘우주선’으로 바뀐 2020년대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고호관의 「우주의 집」, 윤여경의 「세 개의 시간」, 임서진의 「반 달을 살아도」는 모두 더 나은 곳을 향해 혹은 살 곳을 찾아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 나온다. 유토피아의 공간이 ‘섬’에서 다른 행성으로 바뀌면서 찾아가는 교통수단도 배에서 우주선으로 이동했고, 그에 따라 헤테로토피아도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가 모호한 공간이거나 혼재된 공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모순된 것이 양립하는 공간으로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하기가 애매한 것은, 사회·역사적인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어느 시기에는 매음굴이, 어느 시기에는 랜드마크가, 어느 시기에는 양로원이, 정신병원이 헤테로토피아로 부각된다. 대표적으로 묘지가 도시의 주택가에서 외곽으로 이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유토피아가 섬에서 지구 밖 행성, 우주, 그리고 다시 지구의 지도상에 위치 지을 수 있는 어느 곳으로 이동했듯이 말이다. 그래서 크게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와 마음(개인의 성장)의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보통 아동·청소년 SF의 헤테로토피아는 다락방으로 대표되는 후자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로부터 파생된 위기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와 개인의 성장과 마음의 상태에서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금기시된 헤테로토피아(주로 아동·청소년 SF)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장애, 여성, 노인, 사이보그, 어린이 등과 같은 취약자들이 SF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연유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유토피아 밖으로 나와 사회에 같이 섞였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동안 격리하고 추방했던 이들을 지구의 중심으로 배치해서 다시 함께 살아갈 방도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유토피아에서 헤테로토피아로 시선을 돌리고 거울 밖에서 거울 안의 나를 인식하며 실제 내가 위치한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동안 밀어내고 억압했던 것들과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소록도에 보냈던 나병환자와 지구 밖으로 보냈던 장애인과 지구 끝으로 밀어냈던 실험대상인 내성종과, 그리고 억압해서 눌러놓았던 나의 다락방과 지하실, 폐창고를 들여다보고 거론하며 마주해야 할 때이다.

## 2. 사회로부터 파생된 위기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

7) 이병태,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와 우토피아 사이」, 『범한철학』제99집, 2020년 겨울, 246면.

1) 그들은 왜 유토피아를 떠나는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과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또는 푸리에, 벨라미, 모리스가 생각했던 낙원을 능가하는 낙원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그리고 어느 외딴 곳에서 길 잃은 한 영혼만 고통을 당하면 그 낙원에 있는 수백만명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설사 그런 식으로 제공되는 행복을 붙잡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래의 열매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 얻은 행복이 얼마나 추잡한가를 스스로가 명확히 느끼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sup>8)</sup>

캐나다의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호스텔은 과거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이 장소가 호스텔로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도심에서 가깝다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다. 이 호스텔이 더 이상 헤테로토피아의 장소인 감옥<sup>9)</sup>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오타와 ‘도심’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헤테로토피아의 장소는 도시의 ‘외곽지역’이다.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지구 ‘밖’의 유토피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도시의 외곽지역에 사는 비개조인 구역의 사람들이다.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은 지구 멸망의 시대에 지구 ‘끝’에서 발견한 유토피아 마을 ‘프림 빌리지’가 있다. ‘프림 빌리지’가 지구 ‘끝’에 위치에 있는 것은, 돔 시티에서도 쫓겨나고 그들이 쫓겨나서 만든 돔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밀리고 밀려서 아직 아무도 찾지 못한 프림 빌리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프림 빌리지가 지구 ‘끝’에 있다는 것은, 유토피아 마을인 이곳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추방당한 자들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있던 레이첼의 온실은 프림 빌리지에서 헤테로토피아이다. 어슐러 르 쿨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오멜라스 마을 사람들은 지하실의 어두침침한 곳에 가둔 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아이를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의 비참함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분노한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곳에서 나와 더 이상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오멜라스의 평온함은 깨지게 된다. 오멜라스 사람들의 행복은 그 아이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도시 오멜라스는 행복하고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오멜라스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멍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도 그 아이가 왜 그리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왜 아무도 그 아이를 그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꺼내주지 않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더는 그것을 묵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라이아는 인간 환경을 바꾸고 있는 척해본 적이, 아이들이 상처입지 않도록 아이들에게서 비극을 제거하는 어머니인 척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광대버섯을 먹고 하수구에 사는 것을 택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소관이였다. 오로지 사업이나 이윤의 원천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수단인 한에서라면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sup>10)</sup>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어슐러 르 쿨이 서문에서 밝힌 「혁명 전날」에서 오도주의를 창시하고 이끌었던 라이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옆에 혁명이 일어나고 들끓는데도 그냥 묵묵히 자

8) 어슐러 르 쿨,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서문, 『바람의 열두 방향』, 최용준 역, 시공사, 2014 개정판.

9)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2023 제2판 1쇄), 14면.

10) 어슐러 르 쿨, 「혁명 전날」, 『바람의 열두 방향』, 최용준 역, 시공사, 2014 개정판.

기 길을 간다. 라이아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떠난 우라스에서 아나레스로의 개척이 그저 선택일 뿐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의 권력의 수단이 된다면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가도 묻고 있다. 김초엽의 「순례자들을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도 지구 ‘밖’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년이 되어 지구로 순례를 떠난 이후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와 같은 얼룩이나 장애를 지닌 이들이 차별과 대립과 격리된 비개조인 구역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릴리가 자기의 과학적 소산을 모두 폐기하고 지구 밖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한 동안, 그리고 지구 밖 아름다운 마을에서 평화롭게 선택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구의 비개조인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차별과 배제와 억압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순례자들이 지구 ‘밖’ 마을을 벗어나 지구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에게 아픈 각성을 주는 이들은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로 개조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처럼 비개조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비개조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조인 구역의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구 밖의 유토피아로 보내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다. 지구로부터 추방된 자들(격리된 자들)의 희생으로 지구 안의 유토피아(개조인 마을)가 건설되고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초엽이 유토피아로 그렸던 지구 ‘밖’의 추방된 자들의 공간은, 정세라의 작품에서 지구의 지도 위에 배치한 ‘다른 공간’으로 그려진다.

## 2) ‘지구 밖 유토피아 마을’과 지구 수용소 헤테로토피아 -추방자들의 공간

정세라의 SF는 김초엽의 SF 공간과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다. 「모조 지구 혁명기」와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와 『지구 끝의 온실』에서 찾아가던 지구 ‘밖’과 지구 ‘끝’의 유토피아 마을이 ‘모조 지구’나 ‘수용소’에 다름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정세라의 「모조 지구 혁명기」에서의 ‘모조 지구’와 디자이너가 죽은 등대, 「목소리를 드릴게요」의 승균이 격리된 ‘수용소’는 그동안 유토피아라고 지칭했던 곳의 다른 모습이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은 ‘위험하고 불온한’ 사람들을 모아서 유토피아로 보냈던 것이다.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는 ‘위험하고 불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감옥이 아닌 ‘수용소’로 보낸다. 졸업생들이 16명이나 살 인자가 된 이유를 선생님인 승균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성대 제거술을 받으라고 권유받은 승균이 보내진 곳은 수용소였다. 장기 해외 연수를 받는 것으로 해두고 성대 제거술을 받으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곳이지만 한정된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수용소 아닌 수용소는 지도에 있는 곳이지만 수용소 밖의 사람들에게는 ‘없는(다른) 장소’이다.

말이 수용소지 한적하고 한가했으며, 강제 노동 따위도 없었고 수용된 이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밖에서 보면 수용소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곳이다. 수용소에 보내진 이들은 모두 사회에 부적응자이거나 무능력자, 반감을 지닌 위험분자, 슈퍼 보균자 등이다. 우리가 유토피아로 추방했던 이들이 도적떼, 나병환자, 감염병자, 부랑아, 거지 등이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목소리를 드릴게요」의 수용소 안에 들어간 이들이다. 수용소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나 밖에서 보면 연수원 정도의 건물로 우리 옆에 늘 있었던 공간인데, 우리가 지나치고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반) 공간이다. 수용소의 소장이나 관리 요원들은 수용자들에게 일목인(日目人)들이라고 불린다. 하나의 요소에만 반응하고 아주 일관된 목적의식을 갖는 이들이라는 의미이다. 슈퍼 보균자에게 일목인들은 왜 감염되지 않고 수용자들은 왜 감염되지 않는냐는 의문에, ‘괴물들’<sup>11)</sup>끼리는 감염되지

11) 마거릿 애트우드, 『나는 왜 SF를 쓰는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 민음사, 2021, 면. ‘지도의 변두리’에 괴물들이 산다고 한다.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유토피아의 건설이 인간의 정치적 의지의 실현이라는 점과 닮아있다. 잡히지 않는 도적 홍길동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임금이 병조판서 자리를 내어주고 나서 홍길동을 회유한 후, 홍길동은 나라에 들끓는 도적떼 무리를 이끌고 저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옆의 울도국을 쳐들어와 울도국의 왕이 된다. 홍길동의 이상사회로 알려진 울도국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섬처럼 정복된 역사의 공간이었다.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 이름을 모르는 행성이 나오는 것도 유토피아적 이상향이 '우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정세랑의 「11분의 1」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채굴과 목성의 위성은 살기 가능성이 없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다.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이 등장할 경우, 행성의 이름이 사실적이지 않고 판타지적이고 몽환적이다. 금성, 목성, 토성과 같이 1960년대 SF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던 행성들은 2010년대 이후 SF에서 자취를 감춘다. 대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행성 류드밀라의 고향인 이름이 없는 행성(김초엽의 「공생가설」), 자이밀 행성(남유하의 「푸른 머리카락」), 알려지지 않은 행성은 그동안 섬에 한정되었던 유토피아 공간을 우주로 확장한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정복하고 싶은 욕망과 지구에서 추방하고 싶은 자들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는 이중적 욕망이 뒤섞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장소는 이제 바다 너머에는 없다. 지구 이외의 태양계 행성도 알려졌기 때문에, 냉전 시대의 우주 개척 경쟁 이후로 2010년대 이후 SF에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행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상의 행성이 유토피아의 배경으로 떠오른다. 더불어 식민지 개척의 항해를 담당했던 '배'와 같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인 '우주선'(고호관의 「우주의 집」, 임서진의 「반 달을 살아도」, 윤여경의 「세 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 3. 아동청소년 SF의 금기된 욕망의 헤테로토피아 -다락방, 지하실, 폐창고, 가상공간

#### 1) 모험과 일탈의 헤테로토피아- 사회적 질서를 위한 성장의 통로

SF는 아동청소년의 비밀 서사를 들여다보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 판타지에서 달에 가고 싶은 소망과 SF에서 다른 행성에 가고 싶은 소망은 다를까. SF는 대립항으로서 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 현실'이 자리한다. 그 방해 현실은 부모, 학교, 어른, 규칙, 돈 등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꿈보다는 성적을 중요시하고, 못생겨서,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친구가 없게 하는 잔혹한 현실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락방, 골방, 뒷산 동굴, 빈집 등의 아지트나 게임 세계의 가상공간에서 하지 못하던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아동청소년 SF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어른들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금기시된 욕망의 장소이다. 미셸 푸코가 제시한 다락방, 지하실, 대낮의 부모님이 없는 안방 침대 등은 욕망과 탈주와 일탈의 장소이면서 공포와 억압의 장소이다. 지금 여기의 다른 공간이어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공간이면서, 이의제기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은 이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일탈하여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거나 혹은 어른들의 금기를 깨뜨리거나 도전하는 혁명을 일으키며 '성장'한다. 어른이 된 후, 이 공간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나 그리운 공간이 되어 있거나 때로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골방처럼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SF에서 금기된 욕망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은 종종 '지하실'과 '다락방'이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지하실과 다락방이 아이들의 비밀 아지트의 모험 공간이라는 보편적 상징성을 떨 때는 마음의 실재로서 유토피아로 기능하지만, 개개인에게 특수한 경험과 성장의 고통이 배어 있을 때는 개별성을 띤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하게 된다. 마음의 실재로서의 유토피아는

같은 공간이지만 때로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때로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이글회의 『다락방의 외계인』에서는 치킨 가게가 망해서 아빠가 외국으로 돈 벌러 가게 되어 삼촌 집에서 살게 되는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삼촌 집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거기에서도 어둡고 좁고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다락방에서 살게 된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다락방에는 침입자 외계인이 살고 있었다. 다락방은 아빠가 외국으로 돈 벌러 가고 유일하게 노아가 있을 수 있는 장소이지만 외계인 치르가 삼촌에게 들키면 안 되는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노아의 다락방은 무시무시한 곳에서 외계인을 만나는 곳,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푸푸의 품속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을 구할 우주선이 오는 우주 정거장으로 무한히 확장된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사는 외계인들이 삼촌에게 발각되었을 때, 다락방은 더이상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없다.

삼촌이 살던 집이 사기를 당해 철거 위기에 놓이고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삼촌, 노아, 외계인들은 힘을 합친다. 그리고 외계인들에게 병균이 옮을까 하여 삼촌 집은 사람들로 부터 격리되고 삼촌도 일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무엇이든 고치는 능력을 가진 외계인 라이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게 되어 그들은 삼촌 집에서 함께 살아가 수 있게 된다. 밖에는 여전히 외계인들이 일 자리를 뺏으니 쫓아내자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삼촌 집은 지금 여기의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그리고 검은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이 끝났다는 외계인 고향 소식이 전해지고 외계인들을 구할 우주선이 몇 개월 뒤 올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갈 곳인 외계 행성은 유토피아가 된다. 1970년대 산업개발 현장에서 철거된 '판자집', '달동네'도 헤테로토피아이다. 헤테로토피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밀려나고 쫓겨난 자들과 그들의 공간과 문화의 증언이다.

남유하의 「푸른 머리카락」에서 자이밀 행성인은 지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추방하고 싶은 자들이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나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서 자이밀 행성인은 바다에 몸을 담그고 긴 지느러미를 드러내는가 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등대가 있는 방파제'는 정세랑의 「모조 지구 혁명기」에서 유토피아라고 모조 지구를 건설했던 '디자이너' 설계자가 죽은 곳이다. 유토피아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곳일 뿐이라는 허구와 허상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등대가 있는 방파제를 선택한다.

SF에서 아동·청소년의 비밀 아지트인 다락방, 폐건물, 동굴, 빈집, 방파제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다. 이곳은 무한한 우주의 공간이며, 외계 행성이며, 놀이의 공간이고 동시에 어른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공간이다.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지금 여기의 '다른 공간' 헤테로토피아이다. 제2회 한낙원 과학소설상 수상작 고희관의 「하늘은 무섭지 않아」는 우주전쟁 이후 노트북도 사라진 세상의 이야기이다. 인터넷이 더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마을회관에 가서 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사용이 제한된 지금보다 후퇴한 세상이 그려진다. 고희관의 「하늘은 무섭지 않아」의 마을 뒷산에 있는 빈집 터 비탈 너머의 아지트에서 마을 아이들은 달나라와의 전쟁으로 금기시된 로켓을 만들고 쏘아 올리려는 계획을 세운다. 고희관의 「하늘은 무섭지 않아」의 아이들이 달나라를 향해 쏘아 올리는 로켓은 분단 이후 금기시되었던 북한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 전쟁기에 마을 뒷산은 빨치산의 공간이었고, 1970년대 역사소설에서 배경으로 그려졌던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아이들에게 '금기'시된 곳이었다. 빨치산 토벌 작전이나 거창사건에 대한 진실이 알려진 것도, 1996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과서나 교육 현장에서는 다루지 않는 역사적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시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추방했던 자들의 공간이다.

제8·9회 한낙원 과학소설상 수상작인 「사라지지 않아」에서 게임 공간인 '내' 행성에도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다락방'에 안착한다. 혹은 '폐창고'도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종종 등장한다. 금기와 위반의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인물로 내세운 SF에서 배경으로 그려진다. 아동

청소년의 내면과 욕망도 이제 금기하고 통제하고 억압해 놓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징후로 볼 수 있다. 2020년대를 전후한 SF의 지구 밖의 유토피아를 벗어나 지금 여기의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통해 우리는 여성, 노인, 장애, 어린이, 청소년 등의 소수자 문제를 거론해야 하고, 그들의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할 당위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마음의 음지로서의 헤테로토피아- 살인과 멸망의 대가로 얻은 유토피아

아동청소년 SF에서 지하실과 다락방, 폐창고는 그들의 일탈과 모험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험과 일탈의 서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와 욕망, 쾌락, 본능의 덩어리가 뒤엉켜서 혼재하는 곳이다. 김승옥의 「건」에서의 빈집은 윤희 누나의 강간 장소였으며, 듀나의 「너네 아빠 어딴지」에서의 창고는 살인의 증거인 시체를 은닉한 장소이다. 듀나의 소설에서 창고는 위험한 금기이며 도발이며 기존 질서 체계에 대한 반역의 장소이다. 듀나의 「너네 아빠 어딴지」에서의 창고는 위험하고 불온하며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꿈꾼다. 부촌과 판자촌의 경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새별이는 달동네에 아빠와 여동생과 함께 산다. 아빠는 엄마의 가출 뒤로 자매에게 보호자 역할이 아닌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는 동생 새봄이를 강간하려 했다. 새별이는 식칼로 아버지를 죽이고 창고에 무덤을 파고 시체를 묻는다. 그러나 밤마다 아빠가 좀비로 되살아나서 살인을 반복해야 했다. 아빠의 실종이 사실화되고 코너에 몰렸을 때, 창고의 좀비들이 밖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을 물고 좀비가 늘어나고 서울이 폐허화 되자 아이들은 살만해진다. 쇼핑몰에 새로운 주거지를 구축한 새별이와 새봄이는 뒤늦게 찾아와 좀비가 된 엄마를 아빠가 나간 창고에 두고 다른 좀비의 팔을 먹이로 주며 보호자 역할을 한다. 새별이와 새봄이에게 창고는 아빠를 축출한 곳이면서, 또한 가출했던 엄마가 언제까지 자신들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유토피아적 장소이다. 새별이와 새봄이의 유토피아는 아빠의 살인과 세계의 멸망과 폐허를 담보로 이루어진다. 아빠의 무자비한 폭력, 달동네 사람들의 무관심, 북쪽 주상복합아파트 사람들의 오지랖 속에서 달동네 ‘창고’는 다른 삶으로의 통로가 된다. 매일 자정 24분에 죽여서 파묻는 일이 반복되는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낮 동안에는 자매가 극장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는 ‘헤테로토피아’이다.

그러나 이 불온한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수용소, 기숙사, 창녀촌 등의 공간과는 결이 다르다. 오히려 밖의 세상을 멸망의 디스토피아로 끌고 가며, 오로지 자신들의 세계만 유토피아적이다. 세상의 멸망과 맞바꾼 유토피아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유토피아 중 어느 편이 더 견딜만할까. 유토피아는 오멜라스의 끔찍한 삶을 사는 한 아이가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지구의 비개조인들이 여전히 차별과 배제와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을 모른 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좀비에게 물어뜯겨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이기적인 ‘욕망’이다. 그러나 새별이와 새봄이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통로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달리 사회·역사·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보학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20년대 전후의 한국 SF(아동청소년 SF를 포함하여)를 대상으로 해서 소수자의 문제가 밖으로 거론되는 것과 이들이 유토피아 마을에서 밖으로 나온 것의 연계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적떼, 화류병자, 감염병자, 정신병자, 나병환자, 여성, 어린이, 전쟁 이후 거리의 부랑아, 고아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이들을 수용소에 가둔 수십 년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도적떼에서부터 2020년대 소수자의 지구 ‘밖’ 마을과 비개조인 구역의 헤테로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로부

터 추방당하고 억압당한 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공간’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미현, 『번역된 미래와 유토피아 다시 쓰기- 1920년대 과학소설 번역과 수용사』, 소명출판, 2022.
- 김영한·임지현,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2020 초판 24쇄)
-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2022 초판 31쇄)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세계절출판사, 2021.
-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2019 초판 2쇄 10월).
- 마거릿 애트우드, 『나는 왜 SF를 쓰는가』, 양미래 역, 민음사, 2021.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2023 2판 1쇄).
- 어슐러 K. 르 쿨, 『세상 끝에서 춤추다- 언어, 여자, 장소에 대한 사색』, 이수현 역, 황금가지, 2021.
- 어슐러 K. 르 쿨, 『빼앗긴 자들』, 이수현 역, 황금가지, 2002.
- 이명호·박정원·김영임 외, 『유토피아 문학- 고전적 유토피아에서 포스트아포칼립스 유토피아까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편, 알렙, 2021.
-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 장동진, 『이상국가론 동양과 서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장지영(張志暎) 주역, 『홍길동전·심청전』 국문학대계, 고전소설편, 정음사, 1964.1
- 제임스 힐튼, 이가형 역, 『잃어버린 지평선- 불로불사(不老不死)의 낙원 ‘샹그리-라’ 를 찾아서』, 해문출판사, 1991.
- 최애순, 『공상과학의 재발견』, 서해문집, 2022.
- 최애순, 『한국 과학소설사』, 소명출판, 2023.
- 최인훈, 『유토피아의 꿈』 최인훈전집 11, 문학과지성사, 2000(재판 2쇄).
- 토머스 모어, 주요섭 역,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1973.
- 토머스 모어, 박문재 옮김, 『유토피아- 최상의 공화국 형태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 관하여』, 현대지성, 2020.

### 2) 논문 및 비평

- 김기주, 「공자의 정치적 이상사회, “정명(正名)” 의 세상」, 『동방한문학』 43권 0호, 2010, 107~129면.
- 김기주, 「이상사회에서의 일과 노동: 「禮記」의 ‘大同社會’ 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11호, 2009, 99~120면.
-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2021.12, 77~107면.
- 김일환, 「동양 이상사회론의 연원과 그 이념적 성격」, 『동양문화연구』 7호, 2011, 83~117면.
- 김종수, 「“유토피아”의 한국적 개념 형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52호, 2018, 253~275면.
- 박진숙, 「이광수의 『흙』에 나타난 ‘농촌진흥운동’ 과 동우회」, 『춘원연구학보』 제13호, 2018.12, 75~109면.
- 송현호, 「『흙』에 구현된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유정한 사회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69호, 2018.3, 5~33면.

- 손나경, 「1960년대 과학소설의 젠더와 이상사회에 대한 사고실험 - 『어둠의 왼손』과 『완전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권 10호, 2022.10, 307~322면.
- 양윤의·차미령,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비교한국학』 제30권 1호, 2022.4, 197~226면.
-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스토피아와 사이보그- ‘되기’ :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제15권 1호, 2023.4, 161~193면.
- 이종은·윤석산·정재서·정민·박영호·김응환,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1996.2, 7~217면.(면수가 나뉘어서 논문 형식으로 올라와 있으나 단행본으로 보아도 될 정도로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음)
- 전소영,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마가렛 애트우드와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지구 종말이후의 이야기들」, 『동서비교문학저널』 제63호, 2023.3, 291~309면.
- 조민서, 「유토피아의 지도: 종언시대의 논리와 보편성의 궤적」, 『월간 틀』, 2016.3.
- 진선영, 「인류세, 기후소설과 유스토피아(USTOPIA)- 김기창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제21권 2호, 2022.6, 195~221면.
- 진설아, 「『완전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그 한계 연구」, 『비평문학』 82호, 2021.12, 347~371면.
- 최애순, 「1920년대 미래과학소설의 사회구조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기대- <80만년 후의 사회>, <이상촌>, <이상의 신사회>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1호, 2020, 7-51면.
- 최애순, 「1960년대 유토피아의 지향과 균열 『완전사회』」, 『현대소설연구』 83호, 2021.9, 581-616면.
- 최일섭,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 비전과 소수자의 역습- 김초엽의 SF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6집, 2023.8, 141~181면.